

[정규과정] 음반제작워크숍

주제 : 샘플링(Sampling)을 활용한 음원 제작

아날로그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변화된 음악 제작 환경과
샘플링을 활용한 음원 제작에 대해 알아봅니다.



샘플링(Sampling)을 활용한 음원 제작

기술의 빠른 발전만큼 음악 제작 과정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음악 제작은 작곡이나 작사와 같은 초기 작업부터,
마스터링과 같은 마지막 작업까지 그 방법과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특히 작곡에서는 멜로디와 그에 맞는 코드를 만들고,
곡의 장르에 맞는 각 악기들의 연주로 음악을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샘플링을 활용한 음원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샘플링(Sampling)이란,

음악의 일부 구간을 잘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샘플링 기법은 1960년대 전자 음악 등을 추구하는 실험 음악가들 사이에서 테이프 루프나 바이닐 레코드 등을 임의로 부분 재생하도록 재생기기의 동작을 조작하여 음악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힙합 음악에서 이러한 샘플링 기법이 두루 쓰이면서 대중음악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재즈나 댄스 음악, R&B나 록 등의 장르에도 샘플링 기법이 쓰이면서 보편적인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바이닐 레코드를 턴테이블에 틀어 재생하면서 해당하는 음악을 추출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최근엔 디지털 방식이 더 널리 쓰인다. 샘플러를 활용해 이미 존재하는 음악의 일부를 따오기도 하지만, 유료로 사운드 샘플을 구매하거나, 자연 음이나 신시사이저 등을 통해 직접 샘플을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기술의 발전

- 소리를 녹음하거나, 음원의 사운드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혹은 소프트웨어)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신시사이저나 사운드 필터 등을 활용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 연주자만이 가능했던 미묘한 강약 조절이나 애드립 연주 같은 것도 실제처럼 구현해주는 샘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샘플만을 활용해서도 실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원 제작까지 가능해졌다.



2) 음악 트렌드의 변화

- 예전에는 장르의 구분이 확실하고, 장르에 따라 곡의 구성과 악기의 연주법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양한 장르를 섞어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 전자 음악과 실연 음악을 구분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그에 따른 장르적 구분도 모호해졌고, 샘플링과 전자음으로 만든 음원 위에 실연을 섞는 방식의 음악 제작도 많아졌다. 샘플링을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샘플링을 활용한 음악 제작은 작곡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멜로디와 코드를 만들고,

그에 맞는 반주에 샘플링을 한 사운드를 활용하는 방법,

샘플링할 사운드 테마를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춰서 음악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음원 제작의 장점은 먼저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샘플링 기법의 활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악기 소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진동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 일상적인 소리까지 음악에 활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비용도 절약이 된다. 워낙 사운드 질이 좋은 샘플들이 많은 데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음원 제작은 컴퓨터 한 대로 모두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음원 제작이 가능해졌다.

주의할 점은 샘플링을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발표된 음원을 샘플링하면서 허락을 받지 않아 표절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샘플링 작업을 하기 좋은 DAW 몇 가지를 추천하면 아래와 같다.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DAW는 샘플링 음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여기서 다룰 프로그램들은 샘플링 음원을 활용한 음원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다.



벨기에의 image-line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DAW.
loop를 만들고 그 패턴을 조립하면서 곡을 만드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초반부에는 드럼 시퀀싱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다른 미디 시퀀싱도 가능하다.
다른 작곡 프로그램에 비해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
초심자가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다.
가장 최신 버전은 2018년 5월 말에 출시된 FL studio 20이다.

Ableton

독일 베를린 소재 Ableton AG에서 개발하고 2001년부터 판매하는 DAW 프로그램.
전통적인 시퀀싱도 가능하지만, 라이브 연주에 유용한 세션 뷰를 제공하고 있어서,
실제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연주자나 디제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샘플링을 활용한 작곡도 가능하지만, 디제잉이나 일렉트로니카 등에서 샘플링을
하면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DAW와 다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자체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